

# The Dongguk Alumni News

제213호

12

2008

<http://dongguk.or.kr>



동국인은 하나다.  
다같이  
앞장서 나가자!

東國大同窓會報

●발행인 및 편집인\_전순표 ●발행처\_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주소\_110-718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B/D 302호 ●전화\_(02)733-3991/3 ●팩스\_(02)733-3992 ●년회비\_2만원 ●기획\_한우리SJM



▲ 경주캠퍼스 창학 30주년 비전선포식에서 축하공연을 하는 국악과 학생들. (2008.10.31)



## 2008 동국인의 밤

20만 전 동문을 초대합니다.

- 일시 : 2008년 12월 11일(목) 오후 6시
- 장소 : 앰배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

**모이자! 뭉치자! 앞장서 나가자!**



## 2 동국대동창회보

### ■\_화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 - 사진 설명 -

- ① 경주캠퍼스 창학 30주년 기념 동문골프대회.(2008.10.31)
- ② 전순표 총동창회장, 오영교 총장, 최규철 전 부총장, 손동진 경주캠퍼스 총장.(좌로부터)
- ③ 경주캠퍼스 비전선포식에서 김상훈 부산동문회 회장이 모교 발전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④ 경주캠퍼스 30주년 기념 공연.
- ⑤ 동국조각회 전시회에 참석한 전순표 회장과 시무총장.
- ⑥ 상임부회장 회의를 마치고...
- ⑦ ROTC동문회 하반기 임원회의에서 차기회장으로 선임된 성영석 동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⑧ 휴림바이오셀과 산학협력을 맺고...
- ⑨ 식품공학과 동문체육대회.
- ⑩⑪⑫ 2008 캠퍼스 행사 전에 가진 모교발전기금 약정식.(한의학과동문회, (주)HQ, '햄릿' 공연팀)

## ■\_ 동국인에게 보내는 편지

# 동국인의 희망의 불꽃 타오르기 시작하다 힘차게 비상하는 모교 20만 동국인의 저력 결집하여 지원해야



안녕하십니까.  
변화무쌍한 2008년도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년간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동창회 임원 및 회원 여러분  
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동국대학교는 어려웠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롭게 힘찬 전진으로 동국발전을 하나  
하나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총동창회는 새로운 차원의 발전을 위해 거대한 20만 동국인의 저력을 결집하고 모교와도 긴밀한 관  
계를 유지하면서 진정한 동국발전을 위하여 다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는 12월 11일 2008 동국인의 밤 행사에 우리 모두 참석하여 20만 동국인의 단합된 힘을 보여줍시다.

그동안 저는 '동국인은 하나다' 라는 기치아래 20만 동문이 하나로 뭉쳐 동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초를 다지기 위한 노력을 기울  
여 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로 된 동문들의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충무로에 신축될 영상센터 내에 우리 20만 동문의 숙원사업인 동창회관 건립  
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건축기금도 뜻있는 동문들의 협조로 기대 이상의 모금액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3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2008 컴투게더 행사에도 우리 동문들이 대거 참석하여 600여석의 좌석이 모자랄 지경이  
였으며, 이날 현장에서만 46억이라는 거액이 모금되었습니다.

우리 동문들의 모교 사랑이 결실을 맺고, 이를 바탕으로 재 도약을 위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교의 모습을 통해 우리 전 동국인의 희  
망의 불이 이제 타오르기 시작했음을 느낍니다.

동문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 동국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우리 20만 동문

친애하는 동문 여러분!

모교와 동창회 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동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문 상호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강력한 동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나갑시다.

그리하여 동문 여러분 개개인이 모교와 동창회 발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됩시다.

끝으로 다가오는 2009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동국의 얼과 혼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함께 해 주신 동문님들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12.

총동창회장 전순표

■\_종합

## 2008 동국인의 밤 - 12월 11일(목) 오후 6시 앰배서더호텔 2009년은 동국인의 해로... 모이자 · 뭉치자 · 앞장서 나가자!

2008 동국인의 밤이 오는 12월 11일 오후 6시부터 장충동소재 앰배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동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양시키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앞장서 오고 있는 동문들과 함께 개최되는 이번 송년모임에서는 자랑스러운 동국인 상과 감사패, 축하패, 공로패 수상자를 선정·시상하고, 모교의 발전된 모습과 앞으로의 비전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참석 동문들의 스트레스를 확 풀어버릴 수 있도록 전자거문고, 밸리댄스, 소리꾼의 열창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했다.

참석한 동문들에게는 2009년 포켓수첩, 다이어리, 카렌다, 기념품 등을 마련해 풍성한 송년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안내〉

1.참석여부를 꼭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에 예약보장인

원 미달 시에도, 보장인원에 대한 식대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입니다.

2. 행운상품 기증 및 협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외환은행 150-22-01536-0 예금주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 2007년 개최된 동국인의 밤 중 한 컷.

### 모교, 고객만족 경영대상 최우수상 수상 능률협회 주관, 교육기관으로는 최초

국내 대학으로는 최초로 모교가 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고객만족경영대상 서비스혁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11월 18일 열린 '2008 한국의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모교는 지난해 대학 최초로 CS경영팀을 신설해 체계적으로 대학 경영에 CS경영을 도입해 직원 친절교육에 머물렀던 대학 CS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진정한 수요자 중심 교육과 행정을 실시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아 상을 수상하게 됐다.

모교는 CS경영을 통해 학생을 1차 고객으로 규정하고 학생이 졸업 후 진출하는 기업과 사회를 궁극적인 대학의 고객으로 설정해 각종 정책 수립, 제도 개선, 교육과정 개편, 교수법 개발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고객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 지부 · 지회 · 단위모임은 본회에 등록해야

본회는 지부 · 지회 · 단위모임 동문회(이하 동문회)의 운영현황과 기본 자료 등 전국지부지회 실태조사 및 등록을 받고 있다. 이는 동문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20만 동문들의 연락처 · 우편물 발송 주소 등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변동사항 발생시 바로 수정입력(Update)하여 총동창회와 회원 동문들 간에 교신이 차질없이 이뤄지게 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이와같은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 대 회원 서비스에 수반되는 노력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어, 자원 절약 뿐만아니라 본회 재정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p><b>〈실태조사의 목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부, 지회, 단위모임의 임원, 회원 및 활동사항 파악</li> <li>- 20만 동문들의 현 주소지 파악</li> <li>- 불명 주소로 인한 우송료 낭비요소 제거(동창회보 1부 발행시 881원 경비발생)</li> <li>- 조직 확대의 기초자료 수집</li> </ul> <p><b>〈조사대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창회 현 지부, 지회 각 단위모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동창회원의 정기적 모임</li> </ul> <p><b>〈등록방법〉</b></p> <p>등록 양식은 본회 홈페이지(<a href="http://dongguk.or.kr">http://dongguk.or.kr</a>) 공지사항에서 다운.</p> <p><b>〈등록 후 혜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에게 회보 우선 발송</li> <li>- 주요 행사시 화환 제공</li> <li>- 정기총회 개최시, 팩스 · 문자메세지 서비스 제공</li> </ul>
---	---

■ 동창회관건립기금

회관건립기금 기부금

면세 가능 모교 명의 예치금 - 동창회와 공동관리

동창회관(충무로영상센터) 건립기금 기부 예치금 관리에 대해 본회와 모교는 지난 9월 17일 협의를 통해, 예치금 통장에 모교와 본회가 공동 날인함으로써 2개의 인감을 동시에 날인하여야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0만 동문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기부금 모금에 큰 성과를 이루고자 한 것이다.

모교 개설 통장 예치금 예금주 명의(통장 명의)는 '동국대학교(충무관 - 동창회관)' 으로 하여 동창회관 건립을 위한 특정목적 기부 예치금임을 명시하였으며, 모교 명의로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이 발급되어 소득세법 제52조 6항, 법인세법 제36조 1항에 의거 면세 혜택을 받게 하였다.

이와 같이 면세용 영수증을 필요로 하는 기부자는 모교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하면 된다.

신한은행 140-007-927777

예금주 : 동국대학교(충무관 - 동창회관)

기부자가 모교에 기부증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용도를 교육시설 확충 건립기금(충무관/동창회관 건립)으로 하여 특정 목적 기부금임을 명시, 회관건립기금으로만 사용토록 했다.

한편, 면세 영수증이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이미 개설되어 모금액은 총동창회 명의 발전기금 입금 통장을 이용하면 된다.

우리은행 1005-101-173896

예금주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11월 20일 현재 모금실적은 1,651,609,383원으로서, 총동창회 명의로 451,040,922원, 모교 명의로 1,200,568,461원의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다.

2009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동창회관 착공 이후로는 일반 동문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모금 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회관건립기금 기부액에 따른 예우 ■

- 10억원 이상 • 메인 로비에 실물크기의 흉상 설치 및 사후 공적비 건립, 회관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
- 5억원 이상 • 회관 명예의 전당에 실물크기의 흉상 설치 및 사후 공적비 건립, 회관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
- 1억원 이상 • 회관 명예의 전당 동판록에 사진과 함께 기재하고 회관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5천만원 이상 • 회관 명예의 전당 동판록에 사진과 함께 기재하고 회관 이용료는 50% 감액한다.
- 1천만원 이상 • 회관 명예의 전당 동판록에 기재하고 회관 이용료는 50% 감액한다.
- 5백만원 이상 • 회관 명예의 전당 동판 명세록에 기재한다.
- 1백만원 이상 • 회관 명예의 전당 대리석 명세록에 기재한다.
- 1백만원 미만 • 회관 명예의 전당 대리석 기부비에 연명으로 기재한다.

동창회관, 전 동국인의 정성으로 건립합니다.

동창회관 건립기금 기부동문

▲전순표(53/57농학) 600,000,000	▲김진선(71/74행정) 3,000,000	▲이민휘(52/56정치) 1,000,000
▲문태식(00/49사학) 500,000,000	▲서영준(64/68법학) 3,000,000	▲이제곤(64/68경제) 1,000,000
▲류주형(53/57 농학) 100,000,000	▲이범간(72/79경행) 3,000,000	▲임진섭(80/84정외) 1,000,000
▲박준형(57/63 경제) 50,000,000	▲이홍섭(80/84회계) 2,000,000	▲김명희(85/89미술) 500,000
▲원용선(59/63영문) 20,000,000	▲임규영(68/75경제) 2,000,000	▲김완규(63/70농학) 100,000
▲김경재(65/69농학) 14,052,000	▲임영신(53/57경제) 2,000,000	▲홍승근(58/63농학) 100,000
▲남요원(81/88철학) 10,000,000	▲ROTC동문회 2,000,000	▲허남욱(00/01사원) 20,000
▲박종윤(56/59경제) 10,000,000	▲조창현(64/68경행) 1,100,000	▲총동창회발전기금 200,000,000
▲박찬대(56/62농학) 10,000,000	▲강병국(64/68농경) 1,000,000	▲기 타(이자 등) 64,737,383
▲정진태(00.9/02.8행원) 10,000,000	▲김삼철(63/67농학) 1,000,000	▲우리은행 4,000,000
▲차민수(69/73경제) 10,000,000	▲류영수(62/66행정) 1,000,000	합 계 1,651,609,383
▲선목혜자스님(96.9/98.8불원) 5,000,000	▲성낙훈(82.9/83.8행원) 1,000,000	
▲성국스님(74/01체교) 5,000,000	▲심현식(59/63사학) 1,000,000	
▲성월스님(92.3/94.2불원) 5,000,000	▲안명근(59/67경외) 1,000,000	
▲송석환(64/68농경) 5,000,000	▲윤천영(59/66농학) 1,000,000	

상기 기부액은 1차분이며, 2차, 3차 추가로 기부외사를 표명한 동문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_ 모교소식

2008 컴투게더 성료 ... 현장서 46억 모금

동문들 하나되어 올해 기부모금액 100억 돌파 '기염'



동문기부를 통한 대학발전과 후학양성을 위해 기획된 '2008 Come Together' 행사가 성료됐다. 또한 이번 'Come Together' 행사를 비롯한 기부약정식을 통해 그날 하루만 46억이 모금돼 올해 기부모금액이 113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목표치였던 1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결과다.

11월 1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신라호텔 다이내스티 홀에서 열린 '2008 Come Together' 행사는 모교 발전을 위해 뜻을 모은 각계각층의 동문 약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사장 영배스님, 오영교 총장, 전순표 총동창회장 환영사에서 국제관 건립을 비롯해 학교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동문들이 발전기금모금에 적극 동참할 것을 피력했다.

오영교 총장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대학이 명문사학으로 발전하려면 동문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이라고 말하며 대학 발전을 위해 동문들의 발전기금 기부를 호소했다.

전순표 총동창회장 또한 "발전기금 기부는 우리 대학을 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발전기금 모금에 동

참하기를 당부했다.

행사 자리에서는 모두 4건의 발전기금 약정식이 체결됐다.

모교와 산학협력 MOA를 체결한 (주)휴림 바이오셀이 30억원을 기부했다. 또한 한의학과 동문회가 5억원을 약정했으며 모교와 공연 클러스터 구축 MOU를 체결했던 (주)iHQ가 총 3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사법시험 2차 합격자 12명이 학교발전을 위해 1200만원을 기부해 동문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다.

또한 이해량 예술극장 개관기념 연극인 '햄릿'의 이효정, 남성진, 박소연, 소유진, 전해빈 등 출연진들이 연극을 통해 올릴 수익 중 1억5천만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현장에서 이뤄졌던 약정에도 기부는 끊이지 않았다. 이과대학에서 초청 한 대암 선생이 1억원, 불교대학 CEO과정 8기 동문 6천만원, 이창규 동문 5천만원 이외에도 약 157여명의 동문들이 현장에서 발전기금을 약정했다.

## ■ \_ 모교소식

### 경주캠퍼스 30주년 '비전 선포식' 성공 개최

## World Wide Dongguk 완성 새출발 선포...동국이여 영원하라



경주캠퍼스 창학 30주년 기념 '비전선포식'이 신라고도 경주, 10월의 마지막 밤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보문단지 내 현대호텔에서 열린 '비전선포식'은 올해 진행된 30주년 기념사업중 가장 규모가 크고, 비중있는 행사로 서울캠퍼스 102주년과 경주캠퍼스 30주년을 맞이해 '내부고객이 만족하고, 외부고객이 감동하는 World Wide Dongguk의 완성을 위해 21세기를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인재양성대학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는 자리였다.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 행사는 MBC 이재용 아나운서(84/88수교)와 모교 영문학과에 재학 중인 이나영 학생이 함께 진행했고, 당초 예상 참석 인원인 500여 명을 훌쩍 넘는 교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박상진 교수의 지휘로 국악예술단의 모습 북 공연으로 1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서 손동진 총장의 비전선포와 함께 모교 미래상을 보여준 멀티미디어 쇼가 진행돼 참석한 교내·외 관련 인사와 동문, 학부모, 기부자들의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전순표 총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경주캠퍼스는 지역문화를 주도하고 건학이념을 구현하면서 특성화 캠퍼스로서,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말한 후 "우리 20만 동국가족은 모교가 동국정신과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동국 역사를 창조하는데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이라며 경주캠퍼스가 희망찬 미래로 전진하는데 다 같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공식행사가 끝난 후 2부에서는 이날 오전에 진행된 '총장배 동문 골프대회' 우승자 시상식이 개인부문과 단체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개인부문 수상자는 니어리스트 조희식과 통케스트 윤대범, 메달리스트 이병국 동문이며, 단체부문은 사회과학대학원 동문회 대표 강병중 동문이 수상했다.

또 사회 각계에서 역량을 발휘해 모교의 위상을 높인 동문에게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동국인 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 상은 대한한회사협회 김현수(79/90환의) 회장과 국회의원 유재중(81/85행정) 의원, 삼창기업(주) 이두철(89/91사원) 회장 등 총 세명이 수상했다.

■ \_ 모교소식

### 법무대학원 신설-2009년 1학기 개강

## 미국법무, 문화예술법무, 법률실무 등 3개 전공

모교가 법무대학원을 신설해 오는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석사 과정을 운영한다. 법무대학원에 개설된 전공은 ▲미국법무전공 ▲문화예술법무전공 ▲법률실무전공 등 3가지다.

■ **미국 법무전공**은 세계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국제협약의 근간이 미국법임을 감안하여, 국제표준법규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발전적으로 법률시장개방으로 인한 국제거래전문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됐다. 이 과정에서는 미국변호사자격시험과목을 중심으로 미국로스쿨 출신 교수와 미국법 전문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 **문화예술 법무전공**은 전통적으로 강한 모교의 문화·예술 교육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문화, 예술,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문화재, 영상, 저작권 등의 법률문제를 연구, 문화예술시장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문화예술전문법률가를 양성한다.

■ **법률실무 전공**은 법률시장이 개방되었을 때, 선진국 법률가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을 대비해 국내법률가들의 법률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 과정은 송무시장에서의 법률문제해결능력은 물론이고 국제거래시장에서의 법률분쟁해결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운영된다.

### 산업시스템공학과 이종태 교수

## RFID기술로 48억규모 사업 수주하다



산업시스템공학과 이종태 교수가 지식경제부로부터 RFID 기술로 48억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

그는 RFID에 대해 “RFID는 앞으로 국내 물류 운송에 혁신을 가져 올 기술”이라며 “앞으로 물건에 바코드를 대는 대신 탭을 붙여 운송되는

물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의 소비 경향을 알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진국에서는 RFID도입이 활성화 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선 기업들의 초기비용 부담으로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RFID도입에 소극적인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들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 교수는 “RFID 사업의 총괄 책임자로서 어깨가 무겁다”며 “내 목표는 우리대학의 RFID연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RFID의 메카로써 동국대학교가 자리매김하는 것”이라며 당당히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 경찰행정학과

## 기업장학후원으로 장학금 전달 받아

주식회사 에스원 등 12개 기업대표들이 경찰행정학과 장학금으로 3천만원을 기부했다.

경찰행정학과는 지난 10월 30일 사회과학관 3층 행정대학원 첨단강의실에서 기업장학후원행사를 갖고 이들 기업체 장학회로부터 장학금 3천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장학 후원으로 모두 30명의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경찰행정학과가 외부기업체에서 후원받은 장학금은 모두 5억7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불교TV, 모교에 방송장비 일체 기증



불교TV가 지난 11월 7일 본관에서 모교에 방송장비 일체를 기증하는 기증식을 가졌다.

구본일 사장은 “이번 장비기증은 산학협력의 연장선에서 우

수한 방송인력 양성을 위해 힘써 달라”며 이번 기부 목적을 밝혔다. 이번에 불교TV가 기증한 방송장비는 방송용 스튜디오 카메라 3대와 편집기, 스위치, 오디오 콘솔, 자막기 등 스튜디오 녹화장비 일체로 약 1억 3천만원 상당의 규모이다.



■ \_ 모교소식

## 동문 기부운동 활성화 시동 학과동문회 회장단 만찬 성황



모교가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20만 동문과 손잡기에 나섰다. 학교의 이러한 움직임에 동문들도 학교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지난 9월 30일 학과별 동문회 회장단 만찬이 엠배서더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렸다. 건축공학과 박미진(75/79 · 인천시립대학 교수) 동문회장은 “우리가 모교에 그동안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동문들이 학교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전순표 총동창회장과 오영교 총장 및 동문들은 앞으로 동문모임을 정례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 목errick가요제-대상에 이창우군 동악의 가을밤 화려하게 수놓다



동악의 가을밤을 화려하게 수놓은 목errick가요제가 지난 10월 2일 1·2차 예선을 통과한 12개 팀이 각자의 노래실력을 뽐내는 가운데

화려하게 개최됐다. 동국인의 재능을 빠짐없이 보여준 목errick가요제, 이창우(체교3)군이 그 빛나는 무대의 주인공으로 대상을 차지했다. 그에게 대상의 영예를 안겨준 곡 ‘금지된 사랑’은 이군이 그동안 자신의 목소리에 맞는 곡을 부르기 위해 노력했던 덕분이라고 한다.

대상으로 상금 100만원(총동창회 협찬)을 받은 이군은 “아프신 아버지 치료비에 쓰고 싶다”고 했다. 복학생의 신분으로 학비도 벌며 아버지까지 모시는 그의 효성에 감격했다.

## 김진문 신성약품(주) 회장 동국발전기금 1억원 기부



김진문(64/71경영 · 신성약품(주) 회장 · 본회 상임부회장) 동문이 지난 10월 27일 모교에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본관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김 동문은 “후학양성과 대학발전을 위해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기부와 관련해 오영교 총장은 “동문들의 지원과 기부는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학교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진문 동문이 기부한 발전기금은 국제관 건립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발전기금 기부자 명예의 전당 개관 20만 전체 동문 이름 새겨야...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조형물이 전시될 명예의 전당이 지난 10월 24일 개관됐다.

본관 3층 입구에 새로 설치된 명예의

전당은 발전기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 공간으로 고액기부자의 성명을 새긴 조형물과 모교의 역사와 비전을 담은 공간으로 활용된다. 명예의 전당에서는 발전기금 기부자를 한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대의 모니터를 통해 모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담은 ‘동국 마스터플랜’ 영상물을 상영한다.

이날 개관식에는 오영교 총장과 전순표 총동창회장, 현성스님(전 법인이사), 이방주 현대산업개발 부회장, 송석구 가천의대총장(전 총장) 등이 참석했다.

■\_지부·지회 소식

수원동문회-오영교 총장 방문

모교 발전전략 및 캠퍼스 개발 계획 등 설명하고 동문 참여 부탁



수원동문회(회장=김용구·70/74농경·O.S.E.(주) 대표이사·본회 상무이사)는 지난 10월 16일 저녁 7시, 수원시 인계동 소재 사천대반점에서 6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를 열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모교 오영교 총장, 한진수 경영부총장, 이선인(71/76농학) 대외협력단장 등이 직접 참석해 학교의 발전

전략과 캠퍼스 개발 계획 등을 설명하고 동문들과 결속의 시간을 가졌다.

김용구 회장은 오영교 총장에게 “100년 전통의 모교의 위상이 많이 저하되어 실망감이 크다” 며 학교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표했다. 김 회장은 “오영교 총장님의 KOTRA 사장, 행자부 장관 시절의 변화와 개혁정책을 학교에도 유감없이 펼쳐 모교 발전에 초석을 다지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 고 역설했다.

이에 오영교 총장은 “학교에서 여러 동문들에게 즐거운 소식만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니 여러 동문들이 애정을 가지고 학교를 지켜봐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이상웅(66/71임학·향촌조경 대표), 김상인(67/71농경·영덕고등학교 교장), 이형복(70/77사교·영신여자고등학교 교장) 동문이 그동안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전달받았다.

식품공학과동문회

2008 동문체육대회 및 제3회 식공인의 날 행사로 친목 다져



식품공학과동문회(회장=배영민·68/72식공·(주)하나향료 대표이사·본회 상무이사)는 지난 11월 1일 모교 만해광장에서 동문과 교수, 재학생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 동문 체육대회’ 및 ‘제3회 食工人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모든 참가 동문들이 ‘식’, ‘품’, ‘공’, ‘학’, ‘과’ 다섯팀으로 나

누어져 족구, 2인3각 경기, 줄넘기, 단체 줄넘기, 제기차기 등을 통해 선후배간의 화합의 장을 가졌으며, 특히 졸업생 대 재학생 줄다리기에서는 재학생들의 양보(?)로 졸업생이 2:1로 승리했다.

우승팀인 ‘과’ 팀을 위시해서 차례차례로 각 팀 별로 시상금을 받았으며 식품공학과 동문들이 식품회사에서 만든 많은 상품을 찬조해줘 푸짐한 행사로 마무리 했다. 만해광장을 식품공학과 체육대회 및 식공의 날로 가득 메운 동문들은 내년 가을 만남을 기약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협찬회사) 명식품, 바산고려홍삼(주), 신성약품(주), 장충왕 족발 부산지사, 현대자동차 수원구운지점, 한국네슬레, (주)대경햄, 샘표식품(주), (주)신라명과, (주)엘리트유통, (주)클롬방제과, 청룡 KHS(주), 삼아제약, 크라운제과, 쉐바이상사, (주)빙그레, 동서식품, 풀무원, 해태제과, 농심, 롯데제과, 진로, 한국야쿠르트,(주)우영인터내셔널

■\_지부·지회 소식

## 용인시동문회-12월 27일 송년모임 추계 가족등반대회 및 친선골프대회



용인시동문회(회장=우태주·66/70 경영·(주)라인텍 대표이사·본회 부회장)는 지난 10월 25일 동문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가족등반대회를 개최하고 친목을 다졌다. 또한 10월 20일에는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동국용인가족 송년모임은 오는 12월 27일(土) 오후 5시 오아제부페(수지구청 건너편 외환은행 7층)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동문 가족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 사회과학대학원동문회 동문회장배 친선골프대회 열고 친목다져



사회과학대학원 동문회(회장=김석만·89/91사원·(주)신한종합건설 회장·본회 부회장)는 지난 10월 28일 경주 신라C.C에서

모교 관계자와 재학생, 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사회과학대학원동문회장배 골프대회를 열고 친목을 다졌다.

김석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주캠퍼스가 창학 30주년을 맞이한 올해, 우리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경주 울산 포항 뿐만아니라 경북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동국인으로서 모교 발전에 적극 참여하자”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부(회장=오세찬·99/00사원·(주)알파 대표·본회 이사)는 지난 10월 12일 옥동대공원 가족문화센터 체육관에서 120여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한마음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했다.

## ROTC동문회-하반기 임원 및 회장단 회의 개최 신임회장에 성영석 동문 만장일치 선임



ROTC동문회(회장=이용채·66/70 식공·(주)제원인터내셔널 대표이사·본회 상무이사)는 지난 9월 25일

엠배서더호텔 1층 사파이어룸에서 2008년 하반기 임원 및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2009년도를 이끌 신임회장에 성영석(67/71경영·한국포리머(주) 회장·본회 상무이사)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성영석 신임회장 선임자는 인사말을 통해 “모든 우리 ROTC들이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위로는 1기 선배님부터 아래로는 올해 임관하는 후배들까지 한 동아리로 어울릴 수 있는 동문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동국조각회-30주년 기념전 열어 창조적인 사고와 능력을 갖춘 동국인



동국조각회(회장=전중무·81/85미술·(사)서울미술협회 이사)는 지난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인사동 모란갤러리에서 동국조각회

30주년 기념전을 열었다. 10월 1일 개막식에 참석한 전순표 총동창회장은 “혼신의 힘으로 빛은 작품 하나하나에서, 자신보다는 인류의 운명과 미래를 걱정하는 진정한 예술인임을 느낄 수 있었다. 창조적인 사고와 능력을 갖춘 우리 동국의 소중한 인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동국인의 긍지를 바탕으로 예술적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_ 동문동정

**‘청계천의 향수’ 출판기념회**

방원석(54/58정외 · 시인 수필가 · 영림 전설 부회장 · 본회 이사)동문은 지난 9월 26일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청계천의 향수’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삼각산 원래이름 되찾기 토론회**

송석구(58/62철학 · 가천의과학대학교 총장 · 삼각산 제이름찾기 범국민 추진위원회 위원장 · 본회 고문)동문은 지난 11월 10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산으로 불리고 있는 삼각산의 원래 이름을 되찾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강북구 발전 어떻게...’ 주제발표**

김희오(60/64정외 · 제3세계연구소 소장 · 모교 명예교수 · 본회 부회장)동문은 지난 9월 9일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회정책토론회에서 ‘강북구 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 로 주제발표를 했다.

김희오 교수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문화 · 관광 · 복지도시의 강북구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

조영래(62/66법학 · 새마을운동중앙회 감사)동문은 지난 10월 22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입 감사로 취임했다. 조 감사는 대한곡물협회중앙회 감사, 새마을운동중앙회 감사, 동광 · 미풍산업사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다시 본 명산’으로**

**부산한국수필문학상 수상**

김창식(63/65국문 · 시인 · 수필가)동문이 ‘다시 본 명산’으로 부산한국수필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10월 18일 부산 동구 초량동 아리랑관광호텔 10층 연회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이외에 부산한국수필 제2호 출판기념회도 함께 열렸다.

**노량진수산(주) 대표이사**

양성일(64/71경제 · 노량진수산 상임감사)동문이 지난 9월 21일 노량진수산(주)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2010년 9월 20일까지 2년간 대표이사직을 맡게 됐다.

**신성건축디자인 사무실 이전**

김윤중(67/73정외 · (주)신성건축디자인 대표이사 · 본회 상무이사)동문은 지난 10월 24일 사세확장에 따라 강남구 신사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한국서민연합회 환경운동**

최윤섭(68/72수학 · 한국서민연합회 상임대표 · 본회 분과위원장)동문은 지난 10월 26일 강원도 오색약수 주전골에서 한국서민연합회 환경운동 및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강릉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최승준(71/75법학)동문은 지난 11월 16일 르(le)호텔 경포비치에서 열린 강릉고총동창회 2008년도 임시총회에서 제1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최 회장은 동성약기(주) 관리이사, (주)두산경월 기획부장 등을 지냈고 현재 강릉로타리클럽 회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강릉경찰서 중부지구대 지역생활협의회의원, 썬프라자빌딩 대표 등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발명진흥회 사업본부장**

강성용(72/79전자 · LG전자 정보통신특허그룹장)동문은 지난 10월 8일 한국발명진흥회 신입 사업본부장에 선임됐다.

강 신입사업본부장은 미국 B.S.K.B 로펌을 거쳐 조지워싱턴대 국립법센터에서 수학했다.

**한국전파진흥원 원장**

정진우(74/78농경)동문이 지난 8월 26일 한국 전파진흥원 원장에 임명됐다.

**김유복 동문 별세**

**10대, 11대 국회의원 역임**



▲김유복(47/51정치 · 본회 고문) 동문이 지난 11월 20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10대, 11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유복 동문은 또한 육사

7기 출신으로 초대 서울병무청장, 주일맹호부대 부대장, 서울재향군인회장 등을 역임했다. 향년 83세.

임기가 3년인 한국전파진흥원장은 공모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이사**

노주혁(75/82농생)동문이 지난 6월 30일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이사로 취임했다. 노주혁 신입 이사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산업증권, 삼성증권 지점장을 거쳐 COSWIN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한국사진지리학회 회장**

김창환(80/86지교 · 강원대 지리교육과 교수)동문이 최근 청주 서원대에서 열린 한국사진지리학회 정기 학술대회 및 학술총회에서 학회장에 선출됐다.

**토성기업 사무실 이전**

정준호(95/97행원 · 토성기업(주) 대표이사 · 본회 상무이사)동문은 지난 10월 19일 분당구 서현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새롭게 출발했다.

**옥관문화훈장 수훈**

성각스님(97/99문원 · 망운사 주지 · 본회 운영위원)은 지난 10월 18일 2008년 문화의 날을 맞아 옥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 \_ 동문동정

## 안채란 영석학원 이사장 모교에 영석고등학교 기부



안채란(48/54국문·본회 지도위원) 학교법인 영석학원 이사장이 모교에 법인 산하 영석고등학교를 기부하기로 했다.

안채란 이사장은 “동국대와 영석고는 건학이념이 불교정신에 있다”며 동국대에 기부함으로써 영석고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석학원 안채란 이사장은 1954년도에 모교 국어국문과를 졸업하였으며 73년도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모교 여학사회 회장을 40년간 역임하였으며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를 6년간 역임하였다. 현재는 학교법인 영석학원 이사장으로 있다.

## 지거스님 영등포장애인복지관 관장 서울특별시 복지상 수상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관장인 지거스님(99문예원·속명=정윤열)이 지난 10월 5일 제9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여성플

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 사회복지대회 행사에서 서울특별시 복지상을 수상했다. 지거스님의 이번 수상은 그동안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보현의 집을 운영하며, 노숙인 복지와 인권증진, 사회복지회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노숙인들의 재활의지를 고취시킨 공로를 인정 받은 것이다.

서울시 복지상은 '서울특별시시민상운영조례'에 의하여 시상하는 서울특별시 복지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 임덕규 월간 디플로머시 회장 화관문화훈장 받아



영문 월간 외교 DIPLOMACY 회장 임덕규(56/60법학·본회 지도위원) 동문이 지난 11월 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의

실에서 열린 제43회 잡지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로부터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1975년, 영문월간외교 DIPLOMACY지를 창간한 이후 지난 30여년동안 외국의 수 많은 국가원수를 비롯하여 많은 이들과 인터뷰를 하였고, 또한 기타 여러 일들을 통해 국위선양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훈장을 받게 되었다.

## 운문사 명성스님 태국 국립대로부터 명예철학박사 학위 받아



비구니전문도량 경북 청도 운문승가대학 학장 명성스님(64/68불교·본회 지도위원)이 비구니 스님의 위상을 국내외에 드높인 공로로 태국 국립대로부터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태국 마하출라 롱콘 국립대학 총장인 담마코사잔 스님 등 학교

관계자 10여명은 지난 9월 7일 오전 청도 운문사를 방문해 명성스님에게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담마코사잔 총장은 “여성 출가 수행자 교육에 평생을 바친 큰 역할을 한 명성스님의 뜻을 기려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됐다”고 수여이유를 설명하고 “전세계 여성 불자들에게 큰 힘을 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명성스님은 “이번에 명예박사학위를 받게 된 것을 불교발전과 후학 양성에 더 힘써달라는 격려로 받아들여 수행정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_ 모교소식

캠퍼스마스터플랜-동악에서 실현되다

## 산학협력관 건축 시작, 민자기숙사 건설, 국제관도 2009년 하반기 착공

지난 11월 7일 중앙도서관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내달 17일엔 산학협력관 기공식이 예정되어있다. 정보문화관 증축 공사도 내년 6월 착공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학림관, 학생회관, 동국관, 혜화관, 학술문화관, 만해관 6개 건물 옥상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옥상 녹화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 산학협력관및 기숙사착공



현재 테니스장이 위치한 자리엔 산학협력관과 기숙사가 지어진다.

지하 4층 지상 7층 총 50,400㎡의 규모, 총 사업비가 710

억원인 산학협력관 및 기숙사 신축은 그동안 모교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교수 연구 공간 부족 문제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게 해줄 전망이다.

### 중앙도서관증축

중앙도서관도 지난 11월 7일부터 현재 지상 3층 지하 4층에서 지상 한 층을 추가하는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증축으로 약 875석의 열람석이 추가됨에 따라 중앙도서관, 별관 열람실, 법학전문도서관을 합쳐 2,087석이었던 학생들의 열람 좌석이 약 3000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 옥상 녹화 사업



한편 이번 도서관 증축 공사와 더불어 도서관의 옥상 녹화 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도서관 옥상 녹화 사업이 완성되면 도서관 옥상은 학생

들이 공부를 하다 휴식도 취하고 스트레스도 날려버릴 수 있는 쾌적한 녹지 공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현재 모교에서는 중앙도서관 뿐만 아니라 학림관, 학생회관,



동국관, 혜화관, 학술문화관, 만해관 등 6개 건물에 옥상 녹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 정보문화관 증축



270평 규모에 약 13억원으로 교수연구실 8실이 들어설 예정인 정보문화관 1개 층 증축사업도 내년 중순에 착공된다.

### 국제관 신설 예정



이밖에도 외국인 기숙사와 국제회의장이 들어설 국제관도 이제 기획 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사업 준비 단계에 들어서 있다. 국제

관은 국제화 시대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로 앞으로 국제관이 지어지면 외국인 교수와 유학생들을 250여명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국제관은 현재 학림관 옆 계산관이 있는 자리에 연면적 3천평 규모로 공사비 180억원을 들여 3년에 걸쳐 지하 3층 지상 5층 총 8층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